

세계 말라리아의 날(World Malaria Day)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김영화, 간혜수, 신나리, 황경원*

*교신저자: kirk99@korea.kr, 043-719-7160



매년 4월 25일은 말라리아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해, 지난 2007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들에 의해 제정된 '세계 말라리아의 날(World Malaria Day)'이다[1].

2021년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85개국에서 약 2억 4,100만 건의 신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였고, 약 62만 7천 건의 말라리아 관련된 사망이 보고되었다. 사망자의 2/3 이상은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5세 미만의 어린이였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400만 건이 더 발생하고 약 69,000명이 더 사망한 것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하여 말라리아의 예방, 진단 및 치료 서비스 제공 중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2].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의 질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질병 부담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퇴치 진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정체되었다. 말라리아는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생계에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WHO는 2022년도 세계 말라리아의 날 핵심 주제로 '말라리아의 질병 부담을 줄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의 도입(Harness innovation to reduce the malaria disease burden and save lives)'을 선언하였는데, 매개체 방제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 등 말라리아 퇴치 속도를 높이는 투자와 혁신을 요구하였다[1].

우리나라는 WHO가 정한 말라리아 퇴치 대상 국가로, 1970년 정점(15,926명)에 이른 후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으로 환자 발생이 감소하여, 1979년에는 국내에서 말라리아를 퇴치하였음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1993년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재출현한 이후 2000년 4,142명까지 환자가 증가하였다가, 2011년에 1천 명 아래로 감소한 뒤 매년 500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질병관리청에서는 「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 실행계획(2019-2023)」을 수립 및 추진하여, 국내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 중심으로 환자 및 매개체 관리 강화 등 말라리아 퇴치인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3].

2018년 이후 우리나라의 말라리아 환자 발생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과 2021년은 300명 내외로 발생하였다. 특히 2021년도 국내발생 272건은 지난 1995년(150건) 이후 약 26년 만에 300명 미만으로 보고된 것이며,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입출국 제한으로 연간 50명 내외 발생하였던 해외유입 말라리아 환자는 2021년에 21건만 발생 보고되었다. 2021년도 말라리아 사망자는 없었다.

WHO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지역에 맞춤형 예방, 진단 및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3]. 이에 질병관리청은 경기 파주시, 김포시,

인천 강화군 등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말라리아 환자 및 매개체 집중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에는 경기 파주시를 대상으로 보건소, 의료기관 및 약사회 등과 협업하여, '소규모지역 말라리아 환자 관리 강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코로나19와 증상(발열, 근육통, 오한 등)이 비슷하여 놓칠 수 있는 말라리아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의료인 대상으로 신속 진단 검사(Rapid diagnostics test, RDT) 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였고, 의료인용 안내서 제작 및 배포, 임상 전문가 강의도 진행하였다. 또한 동네 약국 방문자 중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신속 진단 검사를 받도록 홍보하였고, 민·관 협력체계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결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말라리아 환자를 조기에 발견(파주시 말라리아 환자의 약 10%)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TV, 라디오, 지하철 등) 홍보를 시행하여 말라리아 인식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3년 연속 토착형 말라리아 발생 0건을 달성한 국가는 WHO에 말라리아 퇴치 공식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2021년에 중국과 엘살바도르가 인증을 받았고, 지금까지 40개의 국가가 말라리아를 퇴치하였다[1].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가 말라리아 퇴치인증에 더 가까워지도록, 현 말라리아 퇴치사업의 운영체계와 민·관·군 협력체계를 재정비하고, 말라리아 환자 발생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심층 전략을 마련하여, 국내 토착화된 삼일열말라리아를 퇴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WHO. int [Internet]. World Malaria Day; 2022 [cited 2022 April 15]. Available from: <https://www.who.int/campaigns/world-malaria-day>
2. World Health Organization, editor. [World malaria report 2021]. Geneva (Switzerland): WHO; 2021. Korean.
3.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Press Release (June 17, 2019) Available from: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144214&cg_code=&act=view&nPage=1